

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포 일시	2026. 9. 18.(금) 13:30	담당 부서	호찌민아이티(IT)지원센터 인공지능(AI)활용확산팀 인공지능(AI)에이전트팀
담당자	김영훈 센터장(+84-28-730-68683) 김찬 매니저(+84-28-730-68682) 박성원 팀장(043-931-5020) 조명수 팀장(043-931-5820)	참고 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호찌민시와 한-베 인공지능 전환 협력 맞손

- 올해 8월 '베트남 국가 인공지능 전략' 승인 이후 첫 한-베 기관 간 인공지능 전환 협력 행사, 호찌민시 창업혁신허브(SIHUB)와 공동 개최 -
- 수출 상담 102건 · 업무협약(MOU) 16건 · 신규 파트너 발굴 등 성과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이하 진흥원)은 9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창업혁신허브(SIHUB)와 공동으로 「한-베 인공지능 전환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고,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11개사를 호찌민시의 공공·산업 수요처 및 현지 협력 파트너와 연결했다.

* 창업혁신허브(SIHUB, Startup & Innovation HUB)는 호찌민시 과학기술청(DOST) 산하의 창업·혁신 지원기관으로, 호찌민시 혁신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2030년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및 2045년 비전」을 승인(8월 28일)한 이후 열린 첫 한-베 기관 간 인공지능 전환 협력 행사로서, 베트남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선 시점에 맞춰 한국의 검증된 인공지능 전환 역량을 현지 수요와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 개회식 및 세미나 단체 사진 (※ 사진 파일 불임) >



- 이번 행사는 진흥원 인공지능(AI)활용본부와 호찌민아이티(IT)지원 센터(이하 호찌민센터)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한-베트남 인공지능 전환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핵심 일정으로서, 전시·상담 중심의 일반적인 해외 진출 행사와 달리 기업별 수요처와 현지 협력 파트너를 사전에 발굴해 직접 연결하는 '타깃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지난 5월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선정하였으며, 이번 행사 이후에도 현지 실증(POC)과 계약 성사를 위한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 참가기업 11개사는 소방·국방·의료 등 부처 협업 사업, 공공 인공지능 전환 사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사업을 통해 국내 현장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들로서, 베트남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이 제시한 공공 행정·산업 인공지능(AI) 전환 수요와 직결되는 분야로 구성됐다.
- 참가기업으로는 ▲부처 협업·공공 인공지능 전환 분야의 인실리코젠(건강관리 리포트 생성, 유전체 임상 해석), 제이에이치솔루션(산재 위험 점검, 건물 에너지 효율화), 피플앤드테크놀로지(방역

어시스턴트, 스마트병원 실시간 위치 추적), 휴인스(구조 대상자 객체 인식 드론), 디투이노베이션(구조 대상자 이동 경로 예측, 전장 공간정보 생성), ▲인공지능 에이전트 분야의 시스원(다국어 콘텐츠 번역 자동 제작 인공지능 에이전트), 엔씨에이아이(제조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쓰리(플랜트 특화 계약, 수주 검토 인공지능 에이전트), 디엠테크솔루션(사출성형 특화 생산관리 시스템), 카멜라이언(인공지능 기반 화면 해설 인공지능 에이전트), 디밀리언(사출성형 제조 특화 인공지능 에이전트)이 있으며, 베트남 디지털 전환 수요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선보이며 현지 기업과 기관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 행사 첫날인 9월 10일(목)에는 개회식과 '한-베 인공지능 전환 파트너십 세미나'가 열려, 베트남 인공지능(AI) 정책·규제 및 시장 동향 설명회와 함께 참가기업들이 현지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사 솔루션을 소개하는 기업 발표가 진행됐다.

○ 개회사에 나선 진흥원의 박성원 인공지능(AI)활용확산팀장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2030년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및 2045년 비전」을 언급하며 "베트남이 그리는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 전면 전환의 미래는 오늘 참가한 한국 인공지능 기업들의 역량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기술·경험과 베트남의 시장·데이터·인재를 결합하는 '공동 창출'의 파트너십이야말로 양국을 더 멀리 데려다줄 것"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실증(POC)과 계약이라는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행사 이후에도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개회식에서는 호찌민센터와 창업혁신허브(SIHUB) 간 업무협약(MOU) 서명식도 진행됐다. 서명식에는 김영훈 호찌민센터장과 당 티 루언(Đặng Thị Luân) 창업혁신허브(SIHUB) 원장이 서명자로 나섰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인공지능(AI) 기업의 호찌민 혁신 생태계 진출 지원 ▲기업 간 교류·매칭 및 공동 행사 개최 ▲현지 실증(POC) 및 상용화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한-베트남 인공지능(AI)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기로 한 양 기관 간의 약속으로서, 한국 인공지능(AI) 기업과 호찌민 혁신 생태계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호찌민센터-창업혁신허브(SIHUB) 업무협약(MOU) 서명식 사진 (※ 사진 파일 불임) >



- 세미나에 이어 9월 10일(목) 오후에는 참가기업들이 ▲제조 혁신 디지털 전환, ▲호찌민시 디지털 전환 수요, ▲의료·헬스케어 등 3개 트랙으로 나뉘어 호찌민시 산업단지,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수요처·현지 협력 파트너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 트랙별 방문에서는 기관별 브리핑과 기업 소개, 협력 수요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가기업들은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제도·조달 정보와 함께 잠재 파트너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현지 기관 방문 사진 (※ 사진 파일 불임) >



- 행사 이튿날인 9월 11일(금)에는 참가기업과 현지 수요처·협력 파트너 간 일대일 사업자 연계가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전날 세미나와 트랙 방문에서 확인한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이어가며, 실증(POC)과 계약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 양일간 행사에는 호찌민시 과학기술청(DOST), 디지털전환센터, 제4차산업혁명센터(C4IR), 의료기기협회(HMEA) 등 호찌민시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전담하는 주요 기관이 대거 참석하여 한-베트남 인공지능 전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 일대일 사업자 연계 사진 (※ 사진 파일 불임) >



-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상담 102건, 업무협약(MOU) 16건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참가기업들이 향후 협력을 이어갈 잠재 협력 파트너 40여 개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 호찌민센터는 행사 이후에도 현지 거래선 추가 발굴과 후속 협의 지원 등 사후관리를 이어가며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계약 성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호찌민시 창업혁신허브(SIHUB)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을 호찌민시의 도시문제 해결·디지털 전환 수요와 연계해, 현지 실증(POC)을 거쳐 상용화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김영훈 호찌민센터장은 "전시장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협력을 넘어, 이제는 베트남 수요처의 문제로 직접 들어가 실증으로 답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베트남이 국가 인공지능 전략으로 전면적인 인공지능 전환에 나선 지금, 창업혁신허브(SIHUB)와의 협력 약속을 바탕으로 한국 인공지능(AI) 기업의 기술이 호찌민시 현장에서 성과로 증명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호찌민아이티(IT)지원센터 김영훈 센터장(☎+84-28-730-68683), 김찬 매니저(☎+84-28-730-68682)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